



# 첫 번째 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시작한 나의 신앙

### 가정의 평화를 깨는 주범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태어난 곳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 평창이다. 그래서인지 김연아의 피겨스케이팅을 보고 있으면 고향 생각도 하면서 뭔가 가슴 뭉클함이 전해져 온다.

1950년대 우리나라의 현실은 6.25전쟁 후라 정말 힘들었다. 게다가 강원도 산골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집은 꽤 괜찮은 집이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 아버지께서는 장사를 하셨는데 잘 될 때는 집이 다섯 채나 될 정도였다. 물론 그것도 11살 때까지 이야기이지만. 내가 11살 때 아버지께서 하시던 일이 안되어 결국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13살 때, 인천 외가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결혼할 때까지 옷을 짜는 편물을 배웠고 인천에 있는 한 가게에 취직이 되어 편물 기사로 일했다.

내 남편은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부산 사람인데 인천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나와 사귀게 되어 내 나이 21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올케의 권유로 부산에 있는 시택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러 종교를 거치다

세월은 흘러 애도 낳고 시간이 흘렀지만 나에게겐 큰 걱정이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에 대한 불신이었다. 남편은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남편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우리 집의 평화는 서서히 깨지고 있었다. 게다가 몸도 여러 군데가 아파서 남편의 불신과 함께 나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때쯤 고향 강원도에 계시던 친정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들르셨는데 나에게 부산에 있는 삼광사라는 절에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권유하셨다. 불교의 힘을 빌려 건강도 찾고 가정의 평화도 찾아보자고 하셨다. 대대로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었고 또 아버지께서 권유하셨던 관계로 그 삼광사라는 절에 다니게 되었다. 물론 남편에게도 권유하여 같이 다니게 되었다.

남편은 정말로 열심히 절에 다녔고 인정도 받아 나중에 직책도 얻었다. 나도 물론 몸의 쾌유와 가정의 평화를 빌면서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몇 년 다니다 보니 기도할 때 시원한 기운이 등 뒤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었다. 내 주변에서 기도하던 어떤 사람들은 방언한 다며 "뚜뚜따따"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하였다. 그 당시에는 잠신을 받아 방언을 하는 것을 모르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것으로만 여겼었다.

삼광사에 다닐 때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한 번씩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비록진경"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같다. 그 당시에 감춰던 만나인 이승 즉, 해인에 대해서도 들었었다. 또 '구인사 큰스님'이라는 분께서 지금 이 시대에 미륵부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아셨다고 전해 들었다. 물론, 그 구인사 큰스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셨다.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몸은 여전히 아팠고 가정의 평화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내 마음은 괴로웠다.

그러다가 거러쳐서 알고 지내던 분을 통해 대순진리회를 알게 되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나는 기꺼이 대순진리회에 나가게 되었다.



내 고향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이다

처음 나가니 조상에게 제를 지내야 한다고 해서 제를 지냈다. 보통 1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는데 나는 20만원을 더 얹어서 지냈다.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제도 지내고 남편도 중용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되었지만 불교에 다닐 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오히려 그럴듯한 명목을 붙여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 생겼다 보니 정도(正道)가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래서 회회가 일어나던 차에 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아저씨 한 분과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까지 이야기를 한 결과, '청우일신회'라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다. 거기에는 분명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기에 또 한번 속는 셈치고 종교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거기도 내가 원하던 곳은 아니

었다.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었다. 몸의 변화도 없었고 마음의 변화도 없었다. 게다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란에 관련된 비리가 눈에 띄었다. 역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뒤도 안보고 청우일신회도 그만 두게 되었다. 그로부터 2년 동안 그 어디에도 나가지 않았다. 더 이상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지금까지는 모든 게 연극이었어"

나는 좋은 말로 표현하면 순수하고 나쁘게 말하면 단순한 성격이라 한 번 옳다고 여기면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돌진하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뒤도 안보고 떠나는 성격이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나의 행동에는 꿈과 많이 연관된다. 예

를 들어, 전날 꿈에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눈에 보이면서 그 사람과 연관된 일들이 일어나곤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 같았다. 또한 나는 매일같이 꿈을 꾸었다. 그래서 꿈 해몽을 잘한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꿈을 꾸었고 신기하게도 맞아떨어졌다.

승리제단에 오기 전에도 꿈을 꾸었다. 아마도 승리제단에 입문한 것이 98년이니 96년쯤이었을 것이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내게 "지금까지는 모든 게 연극이었어."라고 말했다. 그때 확실히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승리제단에 오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연극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 꿈을 꾸고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간 후에 또다시 다른 꿈을 꾸었다. 샘물이 평평 솟고 있었고 샘물 주위로 청우일신회에 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치마만 입고 저고리는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는데 나중에 승리제단에 나와 보니 그 저고리를 입지 않았던 사람만 보이지 않았다.

샘물이 솟는 꿈을 꾸고 며칠 후에 청우일신회에 다녔던 백주미자 씨의 전화가 걸려왔다. 한 번 만나자는 것이었다. 백주미자 씨는 청우일신회에 다닐 때 단팍으로서 평소 존경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반가웠고 샘물 꿈을 꾸 후 라 기대를 하고 약속장소에 갔다. 아구찜을 먹고 나서는 몇 마디 안하고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곳에 가보자고 하였고 나는 두말 안하고 따라갔다. 그것이 내가 승리제단에 입문한 첫날이다. 가자마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예배를 보았다.

첫날 예배를 보았는데 주인공의 말씀이 너무나 나의 마음에 와 닿았고 포근한 느낌으로 나를 감쌌다. 또한 그 말

씀은 나의 뇌리와 가슴 속에 꽂혔다. 다음 날에도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 하지만 이미 나의 마음은 주인공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그 이튿날부터는 기쁨으로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전에 있었던 나의 괴로움은 완전히 없어지고 기쁨이 차고 넘쳤다. 항상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도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니 남편과 같이 있어도 의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속이겨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해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참으로 신기했다. 아마도 그게 천당생활이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나를 얽매어 왔던 모든 짐착들이 사라져 가는 순간이었다. 또한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깨는 주범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이제 나의 정신은 천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때려도 '그냥 때리는구나!' 하고 여길 정도로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오직 구속한 주 만이 쓰이를 뿐이었다. 바로 그 옛날 삼광사의 구인사 큰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시대에 미륵부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과 청우일신회에서 들었던 큰 대도를 뚫으면 그 뒤를 쉽게 따라간다는 말씀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은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계속해서 '이래서 말씀이 맞네. 저래서 말씀이 맞네.'하고 맞장구만 계속 쳐가 되니 추후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구세주의 말씀은 나의 뺨속 깊이 사무치게 되었던 것이다.(계속)\*

조연옥 권사 / 본부제단

## 2014. 메시아절 행사

사회자 / 서모복 승사

대구제단 / 니준경 승사

꽃달발 증정/ 해동산업 이근식

남성중창 / '시명' 과 '시편 150편' 을 불러 성도님들의 환호를 받았다

부산제단의 '주님 앞에 즐거이 춤을 취요' 의 율동. 하나님 앞에 귀염을 떠는(?) 모습이 귀엽다

좌편부터 무궁화 합창단의 합창, 무궁화 관현악단의 연주, 예배에 열중하고 있는 성도들